‘제주살이’ 뚝… 민낯 드러난 인구실태

지난해 전입자 4만명대 붕괴… 평균 거주기간 2.2년
전출자는 최초로 3만명 돌파… 10~40대가 78% 차지
인구유입 기대 사라지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수면위

제주로의 이주열풍이 ‘반짝 현상’에 그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도 바뀌고 있다. 열풍에 가려졌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는 2009년 56만2663명에서 지난해 66만7191명으로 9년새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09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른바 ‘제주열풍’으로 이주민 유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주열풍은 사그라 들고 있다. 2017년 4만1752명으로 절정을 찍었던 제주도 전입자가 지난해 3만9189명으로 추락한 반면 전출자는 2만7747명에서 3만33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출자 3만336명 가운데 이주민은 2만6393명으로 87%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도 10대~40대가 77.6%에 달했다. 또 이주민의 평균 거주기간도 2.2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당장 대비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 유소년 인구 전망은 2020년 9만6479명에서 2040년 8만8524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전망은 2020년 10만1153명에서 2040년 24만778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 전망은 2020년 47만2575명에서 2040년 45만365명, 핵심생산연령인구(25~49세) 전망도 24만3552명에서 21만4124명으로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저출산 등에 기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를 당면과제로 삼고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방지 ▷정착주민 정착 지원 ▷고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전환을 인구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지원 ▷제주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태아 보험료 지원 ▷동네보육협동조합 설립 ▷만 65세에서 70세로 고령인구 기준 상향 등을 인구정책 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관광객)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도 검토한다. 송은범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0일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 쿠펠홀에서 해당 대학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함덕고 음악과엔 데트몰트예비음대반이 개설된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도교육청 교류협약

함덕고 데트몰트음대 교육과정 개설

대학측, 매년 방학기간
함덕고에 교수진 파견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독일 최초의 국립음대인 데트몰트국립음대가 제주의 음악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류에 나선다.

제주도교육청은 독일 현지 시각으로 10일 데트몰트국립음대 쿠펠홀에서 해당 대학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 측에선 이석문 교육감과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학 측에선 토마스 그로세 총장과 안드레 슈테르크 부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으로 함덕고 음악과엔 데트몰트예비음대반이 개설된다. 데트몰트국립음대는 매년 방학 기간 2주간 교수진을 함덕고로 파견해 음악이론과 실기를 지도하고, 함덕고 음악과는 데트몰트의 이러닝 플랫폼을 통해 수업을 받게 된다. 이러닝 플랫폼은 기초 음악이론과 청음훈련, 시창과 화성 분석 등 다양한 실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데트몰트국립음대는 새로운 입시전형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함덕고에 우선 제공하고, 교수진이 선정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독일어 어학 점검과 시험도 진행한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음악은 국적·인종·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 공통의 언어”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음악으로 함께 성장하고 예술적 감수성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의 전통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그로세 총장은 “미래 음악 인재 육성을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함덕고 음악과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임용시험 1차합격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제주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11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에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 수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합격인원은 총 135명이며 유치원 교사(일반) 18명, 초등학교 교사(일반) 94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일반) 12명, 특수학교(초등) 교사(일반) 11명이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시험은 내년 1월 8일 심층면접 평가를 시작으로 9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과 수업실연으로 이어진다. 같은 달 10일 예정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11일 미술·음악·체육 실기평가는 초등교사에 한해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2019년도 제주도 문화상 시상식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시상식이 11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올해 문화상 수상자는 학술부문 하순애씨를 비롯해 ▷예술부문 강중훈씨 ▷언론출판부문 고영철씨 ▷체육부문 홍석빈씨 ▷관광산업부문 송동희씨 ▷국외재외도민부문 문양추씨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주택사업 체감경기 전국 최악

12월 전망지수 최하위권

제주지역 주택사업자들의 체감경기가 미분양 사태 속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의 11월 실적은 하강국면 3단계에 속하는 33.3(전국평균 85.1)에 그치며 전국에서 가장 낮다. HBSI 50대 이하도 제주가 유일하다. 12월 전망치 역시 하강국면 2단계인 55.5로 전북(55.1)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월 제주지역의 HBSI 전망은 전월의 40대를 넘어선 72.0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암담하다. 지난 10월 실적은 37.5이고, 11월 전망도 37.5에 그쳤다.

반면 전국 HBSI 전망치는 83.5로 전월대비 9.2p 올랐고 전월 실적 역시 85.1에서 3.2p 상승했다. 최근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편 제주 미분양 주택은 연말 기준 2016년 271호에서 2017년 1271호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295호로 몸집을 불렸고 올들어서도 지난 10월 1116호를 기록 중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50호에서 올해의 경우도 10월 기준 769호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제주 어제 도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대정읍 143㎍/㎥로 가장 나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 주의보를 내렸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인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11㎍/㎥이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143㎍/㎥(매우 나쁨), 제주시 이도동 121㎍/㎥(매우 나쁨), 제주시 연동 116㎍/㎥(매우 나쁨), 서귀포시 성산읍 105㎍/㎥(매우 나쁨), 서귀포시 동홍동 56㎍/㎥(나쁨)이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하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독자제보 750-2232